

이것이 바로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인 것이고,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성도와 화목함으로써 이러한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화목케 해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니,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은혜를 온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전하여 그들로 믿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가족들에게 화평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족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에, 온 가족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도 화목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분들은, 예수님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분들께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화평으로 다가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화목케 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온 가족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2023. 1. 21 ~ 2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설날 가정예배 순서

입례 **사회자**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새 28장) **다 같이**

대표기도 **말은이**
 (가족 중 한 명이 담당하고,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담당)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
 셧으니

설교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회자**

찬송 (270장/새 508장)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 사회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 “화목하게 하는 직책”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가족분들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 제사법들 중에서 화목제(和睦祭)는 문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불태우는 것과는 달리,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 드릴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골고루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불화한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는데, 첫 사람이자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추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 죽어서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이 은혜가 적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임재해 주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서 섬기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